

時間性과 空間性を 중심으로 살펴본 顔面望診의 原理

金光浩 · 姜政秀*

I. 緒 論

望診은 四診法 중의 하나로 의사가 視覺을 사용하여 환자의 病因·病情·病機를 파악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예후를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외부를 관찰하여 내부의 病變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때문에 《難經·六十一難》에 “望而知之謂之神 聞而知之謂之聖 問而知之謂之工 切脈而知之謂之巧”라고 하여 望診을 診斷의 가장 높은 境地로 표현¹⁾하고 있다. 視覺을 통한 환자의 體型과 體質에 대한 관찰²⁾과 色과 神氣의 發顯程度에 대한 觀察이 診斷의 基本 資料가 되므로 望診이 四診의 우두머리가 된다.

人體는 하나의 有機體이다. 각각의 부분은 자신만의 독특한 機能을 수행하면서 전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체는 經絡에 의하여 內外가 相通하고 있으며 五官과 五體 等 人體의 外形은 내부 장기의 氣機흐름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靈樞·本藏篇》에선 밖으로 그 발현된 것을 보아서 內臟을 알 수 있으니, 病所를 알 수 있다³⁾라고 하였다. 또한 《丹溪心法》에서 그 內部를 알고자 하면 마땅히 그 外部를 관찰하여야 한다. 외부를 진단하면 그 내부를 알 수 있다. 무릇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난다⁴⁾고言及하고 있다.

이에 局部的 疾病이 全體에 影響을 미치고, 外部의 변화가 內에 影響을 주며, 內部的 變化 또한 밖으로 發顯되어진다. 그러므로, 外部에 나타난 異常變化를 통하여 내재한 臟腑와 氣血의 病變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面部의 變化 역시 內臟의 機能發顯과 相關關係가 있어서 內臟에 病變이 생하면 곧 面部에 反應이 나타난다. 面部가 臟腑氣血의 外營이고, 經脈이 모이는 바가 되므로 《靈樞·邪氣臟腑病形》에 “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의 氣血은 위로 面部로 가고 空竅로 走한다⁵⁾.”고 하였다. 面部는 絡脈이 豊富하고 氣血이 充盛하며 皮膚가 여리고 薄하여 色澤變化가 밖으로 쉽게 드러난다. 《望診尊經·五色相應提綱》에 “《內經》의 望法을 살펴보면 五色으로 밖으로 드러내고 五臟이 안에서 應하니 根本과 枝葉의 관계와 같다. 色脈血肉이 서로 잃지 않으므로 病이 있으면 반드시 色으로 나타나니 內外的 밀접한 관계가 마치 그림자가 있으면 形體가 따라오고, 북이 있으면 반드시 채가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⁶⁾.”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臟腑氣血의 盛衰나 邪氣와 氣血間의 亂動이 모두 面部에 반영된다⁷⁾.

그런데 이러한 反應의 形態와 表現은 時間과 空間性에 의하여 發顯되는 것이다. 萬物은 宇宙⁸⁾의 틀 속에 있듯이 人體도 역시 天地에 속하여 삶을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教室

1) 《內經·邪氣臟腑病形篇》에도 “見其色 知其病 名曰明. 安其脈 知其病 名曰神. 問其病 知其處 名曰工.”으로 이와 비슷한 說明이 나온다.

2) 形體의 強弱을 통하여 先天的으로 稟受받은 形氣의 有餘不足을 알 수 있다. 剛強한 사람은 形氣가 有餘한 것이다. 柔弱한 사람은 形氣가 부족한 것이다. 肥瘦로써 血氣의 多少를 알 수 있다. 살진 자는 多血少氣하며, 마른 자는 多氣少血하다.

汪宏：望診遵經，臺北，五州出版社 p. 114.

3) 視其外應以知內臟 則知所病矣

4) 欲知其內者 當以觀乎外，診於外者 斯以知其內，蓋有諸內者 必形諸外

5) 《靈樞·邪氣臟腑病形篇》 “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 其血氣皆上注於面而走空竅”

6) 汪宏：前揭書 p. 9.

7) 柔剛：中醫診斷十四法，北京，金盾出版社，1994，pp. 7-8.

8) 李相殷：漢韓大字典，서울，民衆書林，1994，p. 347, 352.

宇宙란 天地와 古今으로 時間과 空間을 설명된다. 卽 ‘宇’는 空間의인 面을, ‘宙’는 無限한 時間性을 표현한다.

영위하는 것이다. 《靈樞·刺節眞邪篇》⁹⁾에 “與天地相應 與四時相副 人參天地 故可爲解 下有漸洳 上生葦蒲 此所以知形氣之多少也. 陰陽者 寒暑也”라고 하여 天地가 相應하고 時間이 부합되는 刹那에 人間은 天地에 參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萬物이 時間과 空間의 軸 속에서 生長化收藏을 거듭하듯 人間도 天地와 相應하여 時間과 空間의 틀 속에서 陰陽의 動靜과 五行의 生克으로 作用되어 지고 顔面望診 역시 이러한 時空의 조합 속에서 作用되어지는 것이다.

이에 筆者는 時間性과 空間性을 爲主로 하여 顔面望診에 대한 方法을 제시하기 위하여 諸文獻을 根據로 顔面望診의 原理를 研究·調査한 結果,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顔面望診의 空間性

顔面望診의 空間性이란 얼굴의 部位에 五臟六腑나 또는 人體의 形體를 聚象하여서 顔面의 어떤 部位에서 人體의 生理機轉과 病理現狀까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 《黃帝內經》을 基準으로 顔面의 空間構成에 關하여 敘述하되, 基礎的으로 顔面의 上中下 三停에 關하여 記述한 後, 藏府의 다양한 配屬에 對하여 敘述하고자 한다.

《內經》에서는 顔面에 대한 藏府의 配屬이 다양하게 展開가 되는데, 이를 大別하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五官을 위주로 하는 方法, 둘째로 方位配屬을 爲主로 하는 方法과 셋째로 顔面을 內·外로 나누어서 五臟과 六腑를 관찰하는 方法이 있다.

1) 三停으로 上中下를 살핀다.

《靈樞·師傳篇》¹⁰⁾에 “上下三等 藏安且良矣”라 하여 三은 顔面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니 髮

際에서 印堂까지가 上部가 되고, 山根에서 鼻準頭까지가 中部가 되고, 人中에서 턱부분의 下緣까지가 下部가 된다. 이 세부분의 길이가 균형이 맞는 것이 三等이다¹¹⁾. 이는 相家에서 흔히 說明하고 있는 上中下 ‘三停’이 되며, 三停이 均等하여야 五臟이 便安하고 만약 三停이 不等하여 長短이 고르지 않으면 內臟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三停之說은 相土가 重之하고 醫家는 자못 輕視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三停이 得配하면 五臟六腑가 和安하고 健康하며 富·貴·壽를 누릴 것이다¹²⁾.

《靈樞·天年篇》¹³⁾에도 “三部三里起”라고 說明되어 있으니 이 역시 三停의 重要性을 설파하는 것이다. “三部三里起”의 三部는 즉 三停을 이룸이니 즉 額, 鼻, 頰이고, 三里는 卽 明堂三里이니 山根, 年壽, 準頭이다. 三部者는 天地人이니 額이 天이고 鼻가 人이고 頰가 地이다. 故로 三部에는 마땅히 空陷이 있어서는 안 된다. 三里는 上中下이니 山根이 上이고 年壽가 中이고 準頭가 下이니 故로 三里는 마땅히 斷陷해서는 안 된다. 三部三里가 平直豐滿한 즉 壽者의 相이다¹⁴⁾.

따라서 《內經》에서는 三停의 均衡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나 《素問·脈要精微論》¹⁵⁾의 “上竟上……下竟下”의 理論으로 미루어 볼 때 顔面의 上中下는 人體의 上中下の 反映이며 이러한 空間配置를 가능하게 한다. 吳¹⁶⁾는 《四診心法》에서 “以上部候頭 下部候足 中部候藏府 合五色主病之診法也”라고 하여 顔面의 上停에서 頭를 下停에서 足을 中停에서 藏府를 爲主로 본다 하였다. 그리고 一般的인 觀相冊에서도 上停은 하늘의 일, 즉

11) 河北醫學院 :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498.

12) 陸錦川 : 中醫望診相法,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 61.

13)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41.

14) 陸錦川 : 中醫望診相法,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p. 68~69.

15)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59.

16) 吳謙 : 醫宗金鑑 四診心法, 臺南, 世一書局, 1985, pp. 13~14.

9)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316.

10)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165.

官廳 관계의 일이나, 父母의 德과 尊위 關係를 보며 中停은 자기의 몸 또는 자기의 勢力으로 兄弟의 德과 親友之間의 德을 보며 下停은 子女德이나 尊아래 사람과 住宅에 관한 일을 본다 하였다(17)18).

그러므로 人體의 上部인 天에 해당하는 頭面部는 上停에서 觀察할 수 있고, 中部인 人에 해당하는 藏府는 中停에서 觀察할 수 있으며, 下部인 地에 해당하는 足部는 下停에서 觀察할 수 있는 것이다(19).

2) 五官은 五臟에 應한다.

五官에 對하여 《靈樞·五閱五使篇》에서는 “五官者 五臟之閱也(20)”이라 하니 官은 “官之爲言司也(21)”라고 하며 閱은 五臟은 비록 胸腹之內에 藏하지만 그 氣는 外部의 七竅로 通達하여 들어 나게 된다(22)고 하였다. 또 陸(23)은 五官에 對하여 “무릇 官은 管이요 能이니 능한 바로 인하여 管理하는 것이니 이로서 ‘官’이라고 이름했다.”고하여 五臟을 관리하는 役割도 있음을 暗示하고 있다.

歷代 內經의 註家들의 五官에 대한 註를 살펴보면 楠은 “五官者 五臟之竅也 故閱其外而知其內(24)”라고 하였으며, 張(25)은 “五臟之氣 外應於五竅而五竅之各有所司也”라고 하고 馬(26)는 “此言五官爲五藏之外閱而五色又驗于明堂也”하여 五臟의 상태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 五官임을 알 수 있다. 또 《醫學入門·臟腑總論》(27)에 “地五臟血裏 其體在下 其用在上(耳目口鼻)”라고 하여 五臟의 쓰임이 五官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五官에 대하여 《靈樞·五閱五使篇》(28)에서는 “鼻者, 肺之官也, 目者, 肝之官也, 口唇者, 脾之官也, 舌者, 心之官也, 耳者, 腎之官也.”라고 하였으며, 《靈樞·脈度篇》(29)에서도 “五臟常內關於上七竅也. 故肺氣通於鼻, 肺和則鼻能知臭香矣, 心氣通於舌, 心和則舌能知五味矣, 肝氣通於目, 肝和則目能辨五色矣, 脾氣通於口, 脾和則口能知五穀矣, 腎氣通於耳, 腎和則耳能知五音矣. 五臟不和, 則七竅不通, 六腑不和則留爲癰”라고 하여 五官으로 五臟의 狀態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顔面望診을 할 때 五官의 重要性이 부각된다.

이외에도 五官과 五臟과의 關係는 《素問·陰陽應象大論》(30)에서도 “東方生風 …… 肝主目 …… 在竅爲目. 南方生熱 心主舌 在竅爲舌. 中央生濕 脾主口 在竅爲口. 西方生燥 肺主鼻 在竅爲鼻. 北方生寒 腎主耳 在竅爲耳.”라고 설명되고 있으며 五臟의 異常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靈樞·五閱五使篇》(31)에 “以候五臟. 故肺病者, 喘息鼻張, 肝病者, 皆青, 脾病者, 唇黃, 心病者, 舌卷短, 顛赤, 腎病者, 顛與顔黑.”이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顔面의 望診에서 五官에 五臟을 配屬하여 관찰하는 方法은 五官은 五臟을 閱覽할 수 있는 外部의 쓰임이기에 五臟 자체의 本性에 대한 把握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觀相家에서도 五官이라고 일컫는 것이 있는데 相學에서는 韓醫學에서와는 조금 틀린 五官의 概念이 있다. 이에 대하여 陸(32)은 다음과 같

17) 金折眼：觀相寶鑑，서울，大造社，p. 45.
 18) 崔英純：實際人相學，서울，東洋書籍，1981，pp. 19~20.
 19) 《觀相寶鑑》에는 上停，中停，下停을 天才，人才，地才라고도 한다. 이는 天地인 三才로써 顔面에 天人地의 區分을 配屬할 수 있는 理論의 根據가 된다.
 20) 洪元植：精校黃帝內經靈樞，서울，東洋醫學研究院，1985，p. 186..
 21) 馬元臺·張隱庵合註：黃帝內經靈樞，臺北，臺聯國風出版社，1981，p. 258.
 22) 河北醫學院：靈樞經校釋(上冊)，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 347.
 23) 陸錦川：中醫望診相法，北京，中國醫藥科技出版社，pp. 54~55.
 24) 楠虛谷：靈素節注類編(醫門棒喝三集)，浙江省，浙江科學技術出版社，1986，p. 130.
 25) 馬元臺·張隱庵合註：黃帝內經靈樞，臺北，臺聯國風出版社，1981，p. 258.
 26) 馬元臺·張隱庵合註：黃帝內經靈樞，臺北，臺聯國風出版社，1981，p. 258.

27) 李槤：編註醫學入門，서울，大星文化社，1989，p. 91.
 28) 洪元植：精校黃帝內經靈樞，서울，東洋醫學研究院，1985，p. 186.
 29) 洪元植：精校黃帝內經靈樞，서울，東洋醫學研究院，1985，p. 115.
 30) 洪元植：精校黃帝內經素問，서울，東洋醫學研究院，1985，pp. 23~24.
 31) 洪元植：精校黃帝內經靈樞，서울，東洋醫學研究院，1985，p. 186.
 32) 陸錦川：前揭書 pp. 54~55.

이 서술하고 있다.

“五官”의 說을 按察해 보면 본래 內經諸篇에 根源했는데 후세의 사람이 引用하고 相士들이 모아 드디어 相法의 용어가 되었다. 지금의 사람들이 “五官端正”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五官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內經》의 五官의 說을 按察해보면 이것이 가장 原始가 되나 後世의 相士의 說은 비록 《內經》의 說을 본받았으나 이를 줄이고 고쳤으니 相士의 五官의 說은 “眉가 保壽官이 되고, 眼이 監察官이 되고, 脾가 審判官이 되고, 口가 出納官이 되고, 耳가 探聽官이 된다.”

醫家를 按察해 보면 舌로서 五官에 넣었으니 相士는 眉로서 五官에 넣었으니 이 바꿈은 五臟內應의 本을 잃은 것이다. 醫家가 相人할 때도 또한 眉를 일찍이 취하지 않았는데 眉는 능히 안으로 五臟에 습하지 않으므로 이로써 취하지 않은 것이다. 相士는 眉豪로서 相法의 “保壽”를 삼아 그 內應의 本을 亂하였으니 작은 것을 인하여 큰 것을 잃은 것이다.

岐黃의 相法은 五內, 臟腑氣血, 情志好惡을 중요시했으니 다 內外가 應하여 습하고자 함이다. 故로 가로되 “有諸內必有諸外”라 했으니 外에 있으면 반드시 內에도 있는 것이다. 內外가 相應하니 外로는 形姿를 察하고 內로는 臟腑를 살핀 즉 吉凶壽夭, 禍福壽夭가 스스로 벗어나지를 알 수 있다. 相士은 한갓 外骸를 중요시할 뿐 망령되어 附會穿鑿했으니 이로서 相道의 根本을 잃은 것이다³³⁾.

또, 吳³⁴⁾는 “舌赤拳短 心官病常 肺鼻白喘 胸滿喘張 肝目皆青 脾病唇黃 耳黑腎病 深淺分彰”의 註에서 “此以五色合五官 主病虛實之診法也”라고 하여 五官이 五行의 色에 따라 淺淡하면 正虛가 되고, 深濃하면 邪實이 되어 五官으로써 病의 虛實을 區分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說明을 살펴보았을 때 확실히 韓醫學의 五官概念은 人體의 內部 五臟과의 相應關係로

설명됨을 알 수 있으며 五官으로 五臟의 內部消息과 精氣神의 虛實狀態를 가장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3) 東西南北中央의 方位에 따른 配屬

李³⁵⁾는 陳修園이 말하기를 高陽生의 “額이 心이고, 鼻가 脾에 해당하며, 左頰은 肝, 右頰은 肺, 頤는 腎으로 보는 法은 아주 簡捷한 方法이므로 가히 추증할 만하다”라고 하였는데 陳修園 五十二種醫書를 찾아봐도 高陽生을 인용한 구절은 없었으며 단지 陳修園의 《醫學三字經》³⁶⁾, 《時方妙用》³⁷⁾《醫學實在易》³⁸⁾등에 “額心鼻脾左頰右頰肺頤腎”이라고 설명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로써 顔面을 東西南北中央으로 區分하여 五臟을 配屬하는 것이 상당히 臨床에 有意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內經》의 根據는 《素問·刺熱論》에 나타나고 있다. “肝熱病者 左頰先赤, 心熱病者 顏先赤, 脾熱病者 鼻先赤, 肺熱病者 右頰先赤, 腎熱病者 頤先赤³⁹⁾”이라고 言及하여 주로 熱證에 먼저 發顯하는 部位로서 표현되고 있다. 이로써 左頰은 肝에, 右頰은 肺에, 額部는 心에, 鼻部는 脾에, 頤部는 腎에 배속되었으며, 許浚⁴⁰⁾의 《東醫寶鑑》에도 《丹溪心法》을 引用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또 王⁴¹⁾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東西南北四正方과 四間方에 後天八卦를 配屬시켜서 乾에는 大陽을, 坎에는 腎, 艮에는 小腸, 震에는 肝, 巽에는 膽, 離에는 心, 坤에는 胃, 兌에는 肺를 配屬하여 <面部形色之圖>를 作成하였다.

또, 吳⁴²⁾는 “左頰部肝 右頰部肺 額心頰腎 鼻脾 部位 部見本色 深淺病累 若見他色 按法推類”의 註

35) 李正來 : 東洋醫藥原理, 서울, 第一文化社, 1992, p. 92.

36) 陳修園 : 陳修園醫書五十種,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8, p. 77.

37) 陳修園 : 前揭書 p. 85.

38) 陳修園 : 前揭書 p. 202.

39)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119.

40)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1, p. 337.

41) 王好古 : 國譯此事難知, 서울, 大星文化社, 1998, p. 235.

42) 吳謙 : 前揭書 pp. 12~13.

33) 陸錦川 : 前揭書 pp. 54~55.

34) 吳謙 : 醫宗金鑑 四診心法, 臺南, 世一書局, 1985, p. 11.

에서 “此以五色合五部 主虛實賊微正五邪之診法也”라고 하여 顔面의 方位로 五行配屬을 하는 것을 虛實賊微正의 五邪로써 活用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鼻는 脾의 部位이므로 黃色이 보이면 正邪이고, 白色이 보이면 虛邪이며, 赤色이 보이면 實邪, 靑色이 보이면 賊邪, 黑色이 보이면 微邪로 된다⁴³⁾.

이와 같이 五行과 五臟을 顔面의 五方과의 相互關係에 의하여 配屬시켜 보았으니, 예를 들면, 東方·左側·肝은 木氣를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類로써 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臨床에서도 《內經》의 뜻을 爲主로 주로 熱證의 初期에 使用이 되며 五臟의 未發하거나 發病直前의 상태를 나타내어 준다⁴⁴⁾.

4) 内外로써 臟腑를 區分하는 觀點

顔面을 内外로 區分하여서 鼻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서 五臟을 넣고 그 바깥쪽을 六腑에 配屬하며 그 外部를 肢體에 配屬하는 法이 있으니 《內經》에서 가장 많이 使用되었던 것이며, 人體의 藏府를 診斷할 때 많이 引用되는 方法이다. 이에 대하여 《靈樞·五色篇》⁴⁵⁾에 “明堂骨高以起, 平以直, 五臟次於中央, 六腑挾其兩側”이라 하여 藏府를 面部에 配屬하는 理論을 설명하였으며 張⁴⁶⁾은 “藏爲陰而下中故 候次於中央也 ……府爲陽而主外故位次於兩側也”라고 하여 五臟은 陰으로 받아들이므로 中央에 主하고 六腑는 陽으로 發散하므로 兩側에 去함을 설명하였다.

이에 立脚하여 <五色篇>⁴⁷⁾에서 “首面上於闕庭, 王宮在於下極, 五臟安於胸中”이라 하여 首面은 闕庭에 配屬되는데 闕은 《靈樞》에서 “闕者 眉間也⁴⁸⁾”라고 하였고 詞典에서는 闕⁴⁹⁾은 대궐, 궁중

의 양옆에 댄 두 개의 대로써 ‘闕中’, ‘印堂’이라고도 하며 鼻根部의 上方, 兩眉毛間의 部位가 되고 古人은 이 部位의 望診으로 肺部疾病의 診察에 參考가 된다고 보았다. 또, 庭은 “庭者 顔也”⁵⁰⁾, “庭爲顔額”⁵¹⁾이라 하여 이마를 설명하며 사전에서는 庭⁵²⁾을 ‘뜰 정’, ‘집안에 있는 마당’을 설명하고 額部의 中央이며, 望診時 頭面部의 疾病을 診察하는 部位를 ‘天庭’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이마部位에 首面이 해당한다.

王宮에 對하여 張⁵³⁾은 “下極居兩目之中 心之府也 心爲君主 故曰王宮”이라 하여 王宮은 山根部位이며 心臟이 居하므로 王宮이라 하였다. 이를 보면 얼굴에서 눈썹사이를 기준으로 이마가 뜰, 또는 마당, 정원이 되며 眉間은 大闕의 入口가 되고 山根이 王宮이 되고 鼻가 明堂되어 하나의 커다란 階梯의 構造를 하고 있는 듯 보인다. 따라서 마당이 넓으면 마음이 시원하고 마당이 좁으면 마음이 갑갑하듯이 이마의 넓고 적음에 따라 마음의 여유를 볼 수도 있다.

《靈樞·五色篇》⁵⁴⁾에 다시 具體的인 配屬이 나오니 다음과 같다.

前額部에 해당하는 庭은 頭面部를, 兩眉間의 약간 상부에 해당하는 부위는 咽喉를, 兩眉間에 해당하는 闕은 肺, 兩目間에 해당하는 下極은 心, 心の 直下인 鼻柱部位⁵⁵⁾는 肝, 肝部位의 왼쪽은 膽, 鼻準頭는 脾, 鼻準頭 兩傍의 鼻翼부분인 方上은 胃, 中央은 大腸, 大腸을 끼고 腎이 위치하며, 腎

48)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26.

49) 金定濟·洪元植 : 漢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1983, p. 150.

50)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26.

51) 楠虛谷 : 靈素節注類編(醫門樞三集), 浙江省,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 131.

52) 金定濟·洪元植 : 漢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1983, p. 149.

53) 張介賓 :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p. 184~185.

54)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27.

55) 河北醫學院 : 前揭書(下冊) p. 95.
“直下”는 鼻柱部位이며 鼻柱部位는 肝에 應한다.

43) 이는 吳謙의 《四診心法》을 引用한 것인데 虛邪와 實邪가 바뀐 듯 하다. 《難經·五十難》과 《醫學入門》의 從後來者虛邪 從前來者實邪로 보면 鼻에 白色이 보이면 實邪, 赤色이 보이면 虛邪가 되어야 한다.

44) 李案雄 : 顔面望診法,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3, pp. 85~86.

45)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27.

46) 馬元臺·張隱庵 : 前揭書(靈樞) p. 309.

47)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27.

이 있는 뺨의 下方에는 배꼽이, 面王(코)以上은 小腸이, 面王以下는 膀胱과 子宮이 위치한다. 顴骨부위는 어깨, 顴骨의 뒤쪽은 팔, 팔의 아래쪽은 손, 目內眥의 상부는 가슴과 유방, 뺨의 바깥쪽 상부는 등, 頰車穴을 따라 아랫부분은 무릎, 무릎아래는 정강이, 정강이 아래는 발의 병, 입가의 주름부분은 대퇴의 내측을, 巨關은 뺨 아래의 曲骨부위로 膝臑에 해당된다(56)(57).

이에 對하여 吳(58)는 註에서 “此以上部候頭 下部候足 中部候藏府 合五色主病之診法也”라고 하여 上된 病 卽 具體의인 疾病을 觀察하는 것을 說明하였다. 예를 들면 天庭은 上部之上으로 頭面의 疾患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또 《顔面望診法》에서는 <五色篇>의 說明을 慢性病이나 體質의인 素因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刺熱篇>의 方位配屬은 未發이거나 發病直前의 疾患을 볼 수 있으며, <五閥五使篇>의 五官配屬으로는 이미 疾病이 罹患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음을 說明하고 있다(59).

그러나 이러한 <五色篇>에 配屬에 對하여 일부 部位는 歷代 注家들의 약간 相異한 見解가 있으나 代表的인 경우가 大腸과 小腸의 位置에 대한 異見이다.

(1) “中央者 大腸也”에 대한 諸家의 見解

<五色篇>의 배열에서 “中央은 大腸이다”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여러 설이 존재한다.

첫째, 中央은 뺨의 中央을 說明한다는 것으로 張介賓(60)은 “中央者 面之中央 謂迎香之外 顴骨之下 大腸之應也”라 하여 迎香穴의 밖, 顴骨의 아래 쪽이라고 注를 달고 있으나, 이는 곧 뺨의 중앙이

다. 또 李仲梓(61)는 “人中外五分迎香穴 大腸之應也 亦在面之中故 曰中央”이라 하여 迎香穴이며 이곳 도 역시 面의 中央部分이 된다고 說明하고 있다. 徐(62) 역시 같은 說明을 하고 있다. <五色篇>의 配屬理論을 基準으로 살펴보면, 鼻를 中心으로 한 中央部位에는 五臟을, 五臟을 끼고 그 주변부위에는 六腑를, 그 외곽부에는 四肢를 배열한 것이 기본 원칙이니, 위의 醫家들은 이 원칙을 따른 듯하다.

둘째, 中央은 코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얼굴의 正中央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 李(63)는 “中央은 大腸이며, 顔面部의 中央은 鼻頭를 中心으로 해서 圓을 만들고, 上唇緣까지의 距離를 半徑으로 해서 圓을 그리며, 그 區域內의 色調變化가 大腸病變의 변천을 표현하고 있다.”고하여 原文 그대로 얼굴의 中央임을 詳細하게 주장하였다.

人體의 中心이 大腸이기 때문에 脾 小腸 肝 膽을 포함한 부위에 大腸을 배속시켰다. 申金大腸은, 丁火心의 浴地라서 心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이에 心의 상태가 大腸의 울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大腸의 淸陽이 아니면 心의 맑은 기운이 유지되지 않는다. 仙道에서는 大腸을 비워야 道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中央에 大腸을 배속시킨 듯하다.

(2) “面王以上者 小腸也”에 대한 諸家의 見解

小腸의 부위에 對하여 張介賓(64)은 “面王 準頭也 小腸爲府 應挾兩側 故面王之上 兩顴之內 小腸之應也”이라 하였으며 鄧(65)은 “中央之內 面王以上”이라 하여 코 양옆이며 눈아래에 位置하며 大腸의 位置(迎香穴)보다는 약간 위쪽이며 안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五臟을 中央에 配屬하고 六腑를 挾側에 配屬시킨 原理에 合當하다.

56)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27.

57) 庭者, 首面也. 關上者, 咽喉也. 關中者, 肺也. 下極者, 心也. 直下者, 肝也. 肝左者, 膽也. 下者, 脾也. 方上者, 胃也. 中央者, 大腸也. 挾大腸者, 腎也. 當腎者, 臍也. 面王以上者, 小腸也. 面王以下者, 膀胱子處也. 顴者, 肩也. 顴後者, 臂也. 臂下者, 手也. 目內眥上者, 膺乳也. 挾繩而上者, 背也. 循牙車以下者, 股也. 中央者, 膝也. 膝以下者, 脛也. 當脛以下者, 足也. 巨分者, 股裏也. 巨屈者, 膝臑也.

58) 吳謙 : 前揭書 pp. 13~14.

59) 李案雄 : 前揭書 pp. 70~74.

60) 張介賓 : 前揭書 p. 187.

61) 李仲梓 : 內經知要, 新文豐出版公司, p. 30.

62) 徐學山 : 醫學門經,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7, p. 155.

“人中外五分應大腸”

63) 李案雄 : 顔面望診法,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3, p. 21, 34.

64) 張介賓 : 前揭書 p. 188.

65) 鄧鐵濤 : 前揭書 p. 37.

李⁶⁶⁾는 “鼻柱의 肝과 脾사이”, “鼻端의 上緣과 鼻柱間의 區域은 後天의인 小腸의 病證變化를 나타내며, 口唇의 厚薄, 人中의 길이에서 小腸의 先天의인 機能을 관찰한다.”고하여 鼻梁의 肝部位와 脾部位 사이를 小腸에 配屬하였다. 李는 大腸을 飛痘를 중심으로 원을 만들어 면의 중앙으로 배속을 시켰는데 이는 우리 인체에 大腸이 腹部를 크게 한바퀴 두르는 것과 같으며, 다시 大腸안에 小腸이 배속하여 있듯이 鼻梁의 중앙에 小腸을 배속함을 알 수 있다.

반면 陸⁶⁷⁾은 “面王以上者 小腸也”라 하니 小腸은 心과 表裏가 되니 그 位는 마땅히 ‘山根’ 外의 目內眥處라고 主張하여 “目內眥上者 應乳”는 內眥의 上부분이고 鼻의 中央部位인 膈部位에서 上부분에 配屬된다. 이는 肝과 膈이 表裏가 되므로 옆에 붙어있듯이 心과 小腸도 당연히 表裏이므로 옆에 位置하여야 한다는 理論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說明들 中에서 첫 번째 張介賓 등이 主張한 說明이 대부분의 醫書에 나오는 說明이지만 뒤에 나온 두가지 書籍은 望診을 專門으로 하는 書籍이므로 臨床上의 有意性이 있음을 認識하여야 한다.

2. 望診의 時間性

모든 萬物은 時間과 空間이 交叉하는 刹那에 存在하는 것으로서 望診에서도 部位나 色 못지 않게 時間性이 重要하다. 時間性에는 初中末, 季節 및 年齡에 따라 空間과 時間이 만나는 場所가 다르게 된다. 이에 따른 근거를 《素問·天元紀大論》의 文章을 望診에 맞게 새로이 해석함으로써 望診의 時間性에 대한 論旨을 펴 나가고자 한다.

1) 望診의 時間性에 대한 《素問·天元紀大論》의 理解

人體는 氣候와 季節에 따라서 氣機의 升降浮沈과 色澤이 변화하니, 運氣를 바탕으로 望診을 행해야 한다. 運氣가 人體에 미치는 영향과 運氣에 따른 望診을 運氣七篇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素問·天元紀大論》에서 하늘에는 五行이 있어서 五方을 다스려 寒暑燥濕風이 생겨난다. 사람에게는 五臟이 있어서 五氣를 化生하여 喜怒思憂 空이 생긴다. 論에서 이르기까지 五運이 번갈아 교대로 들어와 다스리는데 一年을 周行하고 다시 시작한다⁶⁸⁾라 했으니, 太虛는 生化의 根源이 시작되는 토대로서 萬物은 이것을 依支하여 발생한다⁶⁹⁾.

무릇 五運陰陽은 天地의 道이며, 만물의 綱紀이고, 變化의 父母이며, 生殺의 本始이고 神明의 府가 되니 가히 通하지 않는 것은 不可하다⁷⁰⁾라고 하였다. “天地者 萬物之上下也”는 顔面의 이마와 地閣을 의미한다. 上下는 疾厄宮을 중심으로 陰陽으로 나누는데 살이 빠지거나 찌는데 따라 줄거나 늘지 않는다. 따라서 上下는 基準이 된다. “左右者 陰陽之道路也”는 左右顳骨과 肌肉의 氣血⁷¹⁾을 말한다. 肌肉은 肥瘦에 따라서 줄거나 늘면서 變化한다. “水火者 陰陽之徵兆也”는 神色의 變化하는 象과 寒熱을 말한다. “金木者 生成之終始也”는 骨의 剛柔⁷²⁾를 나타낸다. “氣有多小 形有盛衰”는 皮肌肉骨의 盛衰를 나타낸다. “上下相召而損益彰矣”는 上下左右의 均衡調和와 盛衰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天氣와 地氣가 어우러져 生化하여야 人氣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天道가 돌아가는 깊고 미묘한 理致를 가까이 함으로써 다가올 氣候變化를 알 수 있듯이 人體의 다가올 疾病을 알 수 있다. 過去의 氣候變化를 추측할 수 있듯이 過去의 疾病도 알 수 있다.

天地의 動靜은 日月星辰으로서 綱紀를 삼는데, 望診은 陰陽과 木火土金水 五星을 綱紀로 삼는다.

68) 洪元植 : 前掲書(素問) p. 233.

天有五行御五位 以生寒暑燥濕風 人有五臟化五氣 以生喜怒思憂恐 論言五運相襲而皆治之 終暮之日 周而復始……

69) <天元紀大論> 太虛廖廓 肇基化元 萬物資始

70) 洪元植 : 前掲書(素問) p. 233.

夫五運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使不通也

71) 骨은 氣를, 肉은 血을 意味한다.

72) 부드러운 骨은 木에 속하며, 강건한 骨은 金에 속한다.

66) 李案雄 : 顔面望診法,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3, p. 21, 34.

67) 陸錦川 : 前掲書 p. 64.

陰陽의 升降은 寒暑의 往來를 통해 그 조짐을 알 수 있는데, 望診은 明暗으로 陰陽升降을 알 수 있다. 天地의 陰陽變化는 四時로 나타나는데, 人身의 陰陽變化는 四時의 絶對의 影響을 받고 天地의 規律와 附合된다. 天道란 六氣의 循環으로 인해 나타나는 季節의 變化이다. 天地變化의 作用은 하늘에서는 星象으로 나타나고, 땅에서는 萬物의 형태로 나타나니 天에서는 오른쪽으로 運行을 하고, 땅에서는 왼쪽으로, 人身에서는 男子는 左로 運行하고 女子는 右로 運行하는 것이다.

燥氣는 대지를 乾燥시키고, 지나치면 대지가 燥熱해지니 燥證이 된다. 暑氣는 대지를 증발시키고, 지나치면 대지가 뜨거워서 暑證를 나타낸다. 風은 대지를 움직이고, 지나치면 萬物이 動하여 風證이 생긴다. 濕氣는 대지를 적셔주며, 지나치면 질퍽거리며 濕證이 나타난다. 寒氣는 대지를 단단하게 하고, 지나치면 대지가 얼어서 龜裂이 생긴다. 火氣는 대지를 따뜻하게 하고, 지나치면 대지는 굳게 되고 火證이 나타난다.

風寒의 氣는 아래에 있고, 燥熱의 氣는 위에 있다. 濕氣는 가운데 있고, 火氣는 여러 氣 사이를 돌아다니는데 顔面에서도 이와 같이 나타난다⁷³⁾.

하늘의 理致는 六六之節의 盛衰로 나누어지는데, 望診은 三陰三陽으로 나누어진다. 左眼이 三陽이 되고, 右眼이 三陰이 된다. 여자는 左眼이 三陰이며 右眼이 三陽이다.

天氣의 變化를 연구하려면 六氣를 파악해야하고 地氣의 變化를 파악하려면 六氣와 相應하는 五行의 位置를 파악해야 한다. 인체의 變化를 연구하려면 天氣와 地氣의 相互作用을 파악해야한다.

望診에 있어서 이마는 地閣과 같이 보고, 地閣은 五行과 相應해서 본다. 人體의 變化는 이마 눈 地閣 五行의 相互作用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六氣의 상호간에는 勝氣와 復氣가 있어 이들의 勝復作用으로 인해 각기 특징, 生化, 作用, 變化가 있으며, 變化가 발생하면 邪氣가 발생하는데, 天인 日月 五行(七曜)과 地인 皮毛肌肉骨과 人氣의 喜

怒哀樂思悲恐의 寒暑往來가 左右로 對稱, 上下對稱의 勝復으로 나타난다.

대저 萬物의 生成은 氣化作用에서 비롯되고 萬物의 成長이 極에 達하면 變化의 原因이 되며, 變化와 生化의 다툼은 生成과 衰退의 原因이 된다. 그러므로 氣에서는 進退가 있고, 作用에는 느림과 빠름이 있으니, 그 變化는 微妙하고 嚴密하여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氣化의 偏盛 偏衰는 人體 內외의 陰陽의 太過不及을 초래하고, 太過하게 되면 本氣는 다른 氣를 제압하고, 不及하면 다른 氣가 本氣를 제압하여 疾病을 발생시킨다.

氣化의 理致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萬物로부터 나타내고, 天人相應의 理致를 터득한 사람은 반드시 天地의 變化에 適應하고, 生化變化에 通達한 사람은 반드시 自然界의 變化규율을 파악한다하니, 醫道에 정통한 사람은 위로는 天文을 알고, 아래로는 地理를 알고 가운데로는 人事⁷⁴⁾를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萬物의 形成은 時間과 空間의 交叉地點에서 形成되므로 顔面의 望診亦是 空間的인 要素 뿐만 아니라 時間性인 四時와 年齡의 變化에 依據하여 望診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三停을 통한 初中末의 意義

三停에 대한 學說은 相學에서는 가장 基本이 되는 說明이다. 다음은 相學에서 보는 三停을 살펴본다.

三停이란 上停, 中停, 下停을 말함이니, 髮際에서 印堂까지가 上停이니 주로 初年運을 보고, 山根부터 準頭에 이르는 부위가 中停이니 中年의 運을 보고, 人中으로부터 地閣까지가 下停이니 末年의 運을 主管한다⁷⁵⁾. 또, 上停은 十五歲에서 三十歲 까지의 運을 支配하고, 中停은 三十一勢부터 五十歲까지의 運을 支配하며 下停은 五十一歲부터 七十五歲까지의 運을 지배한다⁷⁶⁾.

74) 天文은 星辰風雨寒暑이고, 地理는 山川飛潛 動物植物이며, 人事는 人體 氣血 表裏 逆順을 말한다.

75) 曹誠佑譯 : 完譯 麻衣相法, 서울, 明文堂, 1994, p. 49.

76) 金哲眼 : 前揭書 p. 45.

73) 李樞 : 前揭書 p. 93.

風寒在下 燥熱在上 濕氣居中 火獨遊行其間 以主榮衛而不息

이와 같이 相學에서는 三停이 均等한 것뿐만 아니라 時間의 흐름을 살피는 基準이 되는 것이다. 이를 韓醫學에서는 李⁷⁷⁾가 引用하여 敘述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다.

·歲에서 十四歲까지가 귀이고, 十五歲에서 三十歲까지가 이마에서 눈썹까지인 印堂에 해당하고, 三十一歲에서 五十歲까지가 눈썹에서부터 코끝 準頭에 해당하고, 五十一歲에서 七十五歲까지가 人中에서 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三十以前的 가장 중요한 부위는 天庭과 日月角과 印堂이요, 三十歲에서 五十歲까지는 山根과 눈과 兩顴이며, 五十一歲에서 七十五歲까지가 人中과 입과 地閣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人體의 生理病理 變化를 살필 때에도 그 患者의 年齡에 따라서 顔面望診의 關心部位가 달라지니 예를 들면 十七歲의 人體라면 上停을 보고 三十歲 以前이므로 天庭과 日月角과 印堂을 爲主로 보게 된다. 또한 人體의 生理機轉의 初中末도 여기서 나타나니 疾病의 初期는 이마를 爲主로 본다면 疾病의 末期는 턱을 위주로 본다는 類推解釋이 가능하다.

3) 顔面을 통한 四時望診의 意義

顔面の 四時望診은 四時에 따른 氣色으로도 보지만 顔面의 部位的인 要素가 있으니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1) 方位와 色으로 보는 四時望診

첫째는 顔面을 東西南北으로 나누어서 五行의 色을 季節에 배속시키는 方法이 있다.

《靈樞·順氣·一日爲四時篇》⁷⁸⁾에 “肝爲牡臟, 其色青, 其時春, 其日甲乙. 心爲牡臟, 其色赤, 其時夏, 其日丙丁, 脾爲牡臟, 其色黃, 其時長夏, 其日戊己, 肺爲牡臟, 其色白, 其時秋, 其日庚辛, 腎爲牡臟, 其色黑, 其時冬, 其日壬癸”라고 하였고, 《靈樞·五音五味篇》⁷⁹⁾에 “手少陰臟心, 色赤, 味苦, 時夏……

足少陰臟腎, 色黑, 味鹹, 時冬……足太陰臟脾, 色黃, 味甘, 時季夏……手太陰臟肺, 色白, 味辛, 時秋……足厥陰臟肝, 色青, 味酸, 時春.”라고 하여 春夏季夏秋冬 四時에 肝心脾肺腎 五臟이 應하며 이것이 顔面에서 靑赤黃白黑으로 發顯됨을 알 수 있다. 또, 《素問·六元正紀大論》⁸⁰⁾에 “春氣始於左 秋氣始於右 冬氣始於後 夏氣始於前 此四時正化之常”이라 하여 顔面에서 보면 左側은 春氣가 始하고 右側은 秋氣가, 턱부위는 冬氣가, 이마부위는 夏氣가 始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봄은 左顴을 보되 木旺節이므로 靑해야 하고, 여름은 이마를 보되 火旺節이므로 붉어야 하며, 가을은 右顴을 보되 金旺節이므로 희어야 하며, 겨울은 턱을 보되 水旺節이므로 黑을 꺼리지 않는다. 봄은 三陽⁸¹⁾을 아울러 보고 여름은 印堂을 함께 보고 가을은 年上과 壽上을 兼하여 중시하고 겨울은 地閣과 입을 같이 본다.

그리하여 本色이 나타나면 吉하고, 또한 相生의 色은 良好하니 만약 봄에 木色이 나타나면 吉하고 相生의 色은 양호하나, 만일 相克의 색인 白色이 左顴이나 三陽에 나타나면 자신의 재액이나 집안 사람이 죽는 수가 있다. 여름에 印堂에 黑色이 나타나면 病이 있을 징조이다⁸²⁾.

총괄해보면 東은 暗色이 좋지 않고, 西는 靑色이 좋지 않고, 南은 白을 忌하며, 北은 紅이 좋지 않다.

(2) 五官으로 보는 四時望診

둘째로, 五臟의 消息인 五官이 四時에 應함을 알 수 있으니, 《素問·金匱眞言論》⁸³⁾에서 “東風生於春……南風生於夏……西風生於秋……北風生於冬……中央爲土”, “東方靑色 入通於肝 開竅於目

80)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75.

81) 눈두렁 / 李正來 : 前掲書 p. 110.

그러나 三陽은 太陽으로 왼쪽 눈을 설명하며 三陰은 太陰으로 오른쪽 눈을 설명한다. 단 男子 基準이고 女子는 左右가 바뀐다.

82) 李正來 : 東洋醫學原理, 서울, 은누리출판사, 1982, p. 111.

83)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 20~21..

77) 李正來 : 東洋醫藥原理, 서울, 은누리출판사, 1990, p. 118.

78)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06.

79)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82.

藏精於肝……南方赤色 入通於心 開竅於耳⁸⁴) 藏於心……中央黃色 入通於脾 開竅於口 藏精於脾……西方白色 入通於肺 開竅於鼻 藏精於肺……北方黑色 入通於腎 開竅於二陰 藏精於腎”라고 하여 顔面을 診斷할 때에 봄에는 目을 보고, 여름에는 舌을 보며, 長夏에는 口를 보고 가을에는 鼻를 보며, 겨울에는 耳를 본다.

(3) 四時望診에 의한 寒熱燥濕의 變化

以上으로 살펴보면 木火土金水の 春夏長夏秋冬四時에 따라 顔面의 觀察하는 部位가 다르게 됨을 알 수 있다. 木인 春에는 左顴骨과 눈(눈의 맑기), 눈썹, 구렛나루, 머리털(髮의 조밀성과 鬱滯정도)을 보고, 三陽을 함께 본다. 火인 여름에는 이마와 눈빛(눈의 色澤과 神氣의 발휘정도), 舌을 보고, 印堂을 함께 본다. 土인 長夏에는 코와 辰戌丑未⁸⁵)方의 四角部位와 볼의 肥厚정도를 본다. 金인 가을에는 右顴骨과 骨과 齒牙를 보며 年上과 壽上을 兼하여 重視한다. 水인 겨울에는 턱과 귀, 髮(髮의 윤기), 수염을 보며 地閣과 입을 같이 본다.

色澤이 검고 암울하면 寒이다. 黃赤色이면 熱證이다. 潤氣가 없고 건조하면 燥證이다. 潤氣가 있어서 濡潤하면 濕證이다.

이와 같이 該當하는 季節의 部位에 色澤을 觀察함으로써 四時와 臟器의 關係를 파악하여 미리 豫防하고 治療할 수 있다.

4) 十二月에 따른 氣色의 變化

(1) 圓으로 살피는 方法

남자는 왼쪽에서 오른쪽(반시계방향)으로 十二支를 붙여나간다. 여자는 반대로 돌아간다⁸⁶).

正月의 寅宮은 왼쪽의 顴骨부근에서 턱사이의

中央部에서 조금 위인 “입가와 뺨옆 부근”(相學의 虎耳 法令)을 본다. 正月에 이곳이 맑고 윤택이 있으며 青色이 맑으면 吉하다. 赤色은 火災나 盜賊을 당하고, 黃黑色이면 災厄이 있다.

二月의 卯宮은 눈꼬리와 顴骨변의 命門을 連하여 眼下의 臥蠶⁸⁷)부분까지 본다. 푸른 色이 곁으로 있는 것은 吉하고 안으로 默默히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조각으로 밖으로 있어야 吉하다. 白黑色이나 暗黃色이 나타나면 凶하고 紅紫色은 木生火의 相生이므로 꺼리지는 않으나 처음에는 凶해도 나중은 吉해진다.

三月의 辰宮은 왼쪽 눈썹끝에서 髮際의 사이 天倉과 福堂⁸⁸)이라 하는 곳을 본다. 土旺節이므로 黃色은 吉하고 紅色은 꺼리지는 않으나 白色과 黑色은 꺼린다.

四月의 巳宮은 왼쪽 눈썹과 三陽(왼쪽 눈)의 上, 눈썹의 위 왼쪽 이마의 上中部인 日角의 下部와 그 왼쪽 옆을 본다. 火旺節이므로 紅紫色을 띄어야 하며, 暗滯하거나 靑黑色은 凶하다. 黃色은 물건을 잃는 일이 있고 白色은 孝服이 있다.

五月의 午宮은 이마의 정복판을 中心으로 하여 印堂과 그 좌우 兩眉上을 함께 본다. 火旺節이므로 紅紫色이면 吉하다. 黃色은 꺼리지 않으나 靑黑은 大忌한다.

六月의 未宮은 四月의 반대편인 오른쪽 눈썹의 주위와 눈썹위 오른쪽 이마의 上中部인 日角의 下部를 본다. 土旺節이나 아직은 火가 왕성하므로 紫黃하면 吉하고 靑白黑은 大忌한다.

七月의 申宮은 오른쪽 눈썹끝에서 髮際사이 天倉과 福堂, 三陰과 臥蠶을 본다. 金旺節이므로 白色을 띄어야 하며 相生의 黃潤은 吉하다. 暗滯와 紅赤은 큰 재앙이 있다.

八月의 酉宮은 오른쪽 右顴骨의 上下와 눈꼬리(魚尾) 臥蠶 命門 等を 참고하여 본다. 黃色이 明潤하면 吉하고 暗黑과 赤靑은 일이 잘되지 않을 징조이다.

87) 눈밑에 누에가 누운 것 같이 옆으로 불룩하게 나온 살

88) 飲食을 먹을 때 움직이며 튀어나오는 뼈의 앞부 근

84) 洪元植：前掲書(素問) p. 22.
 <陰陽應象大論>의 “南方生熱……在窺爲舌”에 근거해 볼 때 ‘耳’는 옹당 ‘舌’로 고쳐야 한다.
 85) 李正來：相學眞傳, 서울, 友情出版社, 1984, p. 646.

辰戌丑未方을 四庫라하고 寅申巳亥方을 四偏이라 하고 子午卯酉方을 四正이라고 한다.

86) 金哲眼：觀相寶鑑, 서울, 大造社.
 男은 向南하여 覆地하면 左가 東, 右가 西가 되고, 女는 向南하여 仰天하면 右가 東, 左가 西가 된다. 이것을 實證하려면 溺死體를 보면 男子는 伏浮하고 女는 仰浮한다. 南北은 男女 모두 같다.

九月の戌宮은 오른쪽 뺨옆과 입가의 부근을 본다. 上旺節이며 火庫의 위치이므로 紅黃色이吉하고 靑黑과 赤暗色을 꺼린다.

十月의亥宮은 오른쪽 頤堂에 해당하니 뺨옆 뼈(腮骨)의 線에서 입과 턱옆을 본다. 水旺節이므로 黑明은吉하다. 白色은相生이므로 明潤하면吉하다. 黃赤色은 大忌이다.

十一月의子宮은 아래턱의 부분을 본다. 아래턱과 입사이 오목 들어간 곳, 즉 承漿과 그 주변의人中以下 입가를 본다. 水旺節이므로 白黑의 明潤은吉하다. 또한 冬至에 一陽이 생하여 봄으로 향하므로 靑色도 明潤하면 꺼리지 않는다. 紅黃과 赤暗을 忌하며 黑色의 반점은 水邪의 색이므로 大忌하니 사망도 할 수 있다.

十二月의丑宮은 왼쪽의 寅宮과 承漿사이 頤堂을 본다. 上旺節이므로 靑黃은吉하며, 白色도 明潤하면吉하다. 黑赤의 鬱滯된 색은 大忌한다⁸⁹⁾.

(2) 얼굴의 中央線을 따라 살피는 方法

얼굴의 중앙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며 보는 방법이 있다.

天中은 正月, 天庭은 二月, 司空은 三月, 中正은 四月, 印堂이 五月, 山根이 六月, 年上和 壽上이 七月, 準頭가 八月, 人中이 九月, 正口가 十月, 承漿이 十一月, 地閣이 十二月에 해당한다. 봄에는 靑해야 하며, 여름은 紅해야 하며, 가을은 白色을 띠어야 하며, 겨울은 黑白을 띠어야 좋다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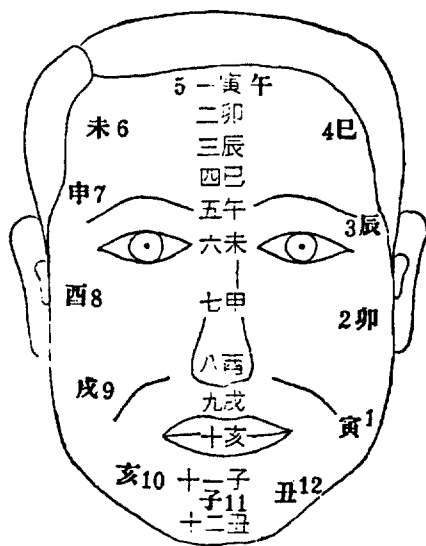
以上の十二月 配屬에 의한 氣色은 그 해의 吉凶을 아는 것이다⁹¹⁾.

四時位置圖



<그림 1 四時位置圖>

縱橫12月圖



<그림 2> 縱橫十二月圖

89) 李正來 : 東洋醫藥原理, 서울, 온누리출판사, 1988, pp. 112~114.

90) 李正來 : 前掲書 pp. 112~114.

91) 李正來 : 前掲書 p. 115.

는 中正이다. 양 눈썹과 山根을 보며, 오른쪽 귀가 운명을 결정한다. 26-27세는 丘陵과 塚墓가 해당된다. 눈과 귀를 관찰하며, 운명의 강약은 이마 전체가 결정한다. 28세는 印堂부위이다. 양 눈썹을 보며, 운은 天倉이 결정한다. 29-30세는 좌우 山林이 해당된다⁹⁵⁾. 양 눈과 코를 함께 본다. 전반적인 운세는 입이 관찰한다.

31-32세는 凌雲(왼쪽 눈썹의 眉頭)과 紫氣(오른쪽 눈썹의 眉頭)부위가 해당한다. 귀와 눈을 함께 보며, 總運은 年上이 결정한다. 33-34세는 繁霞와 彩霞이다. 이마전체와 山根을 관찰하며, 운세의 강약은 法舍이 주관한다.

35세-40세까지는 三陽과 三陰을 관찰한다. 三陽은 左眼의 太陽 中陽 小陽이며, 三陰은 右眼의 太陰 中陰 小陰이다. 三陰三陽은 운기가 없고 어둔운 것을 꺼리며, 운기가 있고 光明한 것이 좋다. 이 부위는 紅紫色을 上色으로 여기고, 光榮한 것을 中色으로 여기며, 明白한 것을 平色으로 삼는다. 靑黑暗滯하면 만사가 破敗한다. 眼色에 赤殺이 過한 사람은 喪夫하거나 喪妻한다.

41세는 山根부위이다. 柱陽과 地閣부위를 관찰하며, 운세의 強弱은 左側의 눈이 결정한다. 42-43세는 精舍와 光殿부위이다. 이마와 눈의 광채를 함께 보며, 운세의 강약은 印堂에서 결정한다. 44세는 年上이며, 45세는 壽上이다. 양 눈과 양 귀를 관찰하며, 운세의 강약은 印堂과 양눈썹이 결정한다. 46-47세는 顴骨部位이다. 눈썹과 코를 관찰하며, 전체운은 머리 뒷부분인 後陽이 결정한다. 48세는 準頭부위이다. 양 관골과 양 눈을 함께 보며, 운세는 입이 결정한다. 49세는 蘭臺이며, 50세는 廷尉이다. 양 눈과 양 귀를 함께 보며, 운세의 강약은 입이 결정한다.

51세는 人中이 해당한다. 이마와 귀를 관찰하며, 운세의 강약은 法舍이 결정한다. 52-53세는 仙庫이다. 양 눈과 양 눈썹을 관찰한다. 운세의 강약은 印堂이 결정한다. 54세-55세는 食倉과 祿倉이다. 양 눈과 양 눈썹을 관찰하며, 운명의 강약은 印堂

이 결정한다. 56-57세는 法舍이다. 코와 입을 관찰하며, 운세의 강약은 印堂이 결정한다. 58-59세는 虎耳이다. 양눈과 양 귀를 함께 관찰하며, 운세의 강약은 이마가 결정한다. 60세는 입이 해당한다. 이마와 印堂을 함께 관찰하며, 운세의 강약은 垂珠가 결정한다.

61세는 承漿이다. 양 눈썹과 양귀를 관찰하며, 운명의 강약은 法舍이 결정한다. 62-63세는 地庫이다. 양 귀와 양 눈을 관찰한다. 운세의 강약은 印堂이 결정한다. 64-65세는 陂池와 鴨鴉이다. 양 눈썹과 인당을 함께 관찰하며, 운세의 강약은 입이 결정한다. 66-67세는 金縷이다. 코와 두 눈을 관찰하며, 운명의 강세는 두 눈썹으로 결정한다. 68-69세는 歸來이다. 印堂과 兩目を 함께 보며, 운명의 강약은 입으로 결정한다. 70은 頤堂이며, 71세는 地閣이다. 수염의 빛깔과 地閣, 양 눈썹을 함께 보며, 운명의 강약은 이마가 결정한다.

3. 望診의 神色形觀察法

顔面望診의 空間性과 時間性에 對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時間과 空間의 交叉地點에서 파악할 수 있는 媒介體는 形과 氣色이다. 그리고 이러한 氣色에 의하여 發顯되는 것이 神인 것이다. 따라서 顔面望神과 氣色の 意味와 肥瘦에 따른 形의 變化를 記述하고자 한다.

1) 望氣色

望色은 환자의 面部에 나타난 色の 變化와 光澤을 보아서 질병을 진찰하는 방법이다. 面部의 색을 관찰함으로써 疾病의 部位·病變의 深淺·病邪의 性質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원리는 다음의 세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첫째, 十二經絡과 三百六十五絡의 氣血이 얼굴로 올라간다.

둘째, 多氣多血한 陽明經이 面部에 분포한다. 이에 얼굴은 혈관이 풍부하여 있어서 臟腑와 氣血의 盛衰가 色澤으로 잘 나타난다.

셋째, 얼굴은 피부가 얇고 연하여 色澤의 변화가 가장 용이하게 드러난다.⁹⁶⁾

95) 양쪽 邊地도 아울러 參看한다. / 李正來 : 前掲書 p. 120.

96) 李鳳教 : 漢方診斷學, 서울, 成輔社, 1992, p. 45.

(1) 氣와 色

汪⁹⁷⁾은 “氣者는 色之變, 色者는 氣之常 氣因色 而其理始明 色因氣而其義乃著 氣也色也分言之 則精微之道顯 合觀之則 病症之變彰 此氣色之提綱”이라 하여 氣와 色은 不可分의 關係이며 氣의 항상됨이 色이고 色의 變化가 氣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이에 對하여 李⁹⁸⁾는 쉽게 서술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다.

皮內에서 은은히 비치고 있는 것이 氣이고, 皮外에 나타나는 것이 色이니, 이 氣와 色이 아울러 이르러 相生이 되면 좋고 만약 서로 相克이 되던지 또는 “色은 있는데 氣가 內에 없으면 죽는다⁹⁹⁾.”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色이 없더라도 氣가 있어 內에서 은은히 비추이고 있으면 生한다¹⁰⁰⁾.”하였다.

또한 이 色에 있어서도 生色과 死色이 있는 것이니, 쉽게 말하여 明潤하고 밝은 기운이 있는 것은 生色이요, 混濁하게 滯하여 어두운 기운이 있는 것은 死色인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白하되 玉과 기름과 같으면 生色인 것이요, 枯骨과 같으면 死色인 것이니 일일이 열거치 않으나 이와 같이 類推할 수 있을 것이다.

(2) 五色과 藏府

《靈樞·五色篇》¹⁰¹⁾에서 “以五色命臟, 靑爲肝, 赤爲心, 白爲肺, 黃爲脾, 黑爲腎. 肝合筋, 心合脈, 肺合皮, 脾合肉, 腎合骨也.”라고 하고 《素問·五藏生成篇》¹⁰²⁾에 “色味當五臟 白當肺辛 赤當心苦 靑當肝酸 黃當脾甘 黑當腎鹹 故白當皮 赤當脈 靑當筋 黃當肉 黑當骨”라고 하였으므로 肝과 筋은 靑色, 心과 脈은 赤色, 脾와 肉은 黃色, 肺와 皮는 白色, 腎과 骨은 黑色이 되므로 각각의 藏府나 五體를 五色으로써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五色도 하나의 色으로 固定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生氣의 有無에 따라 人體生理의 情況이 좋고 나쁨이 있으니 《素問·脈要精微論》¹⁰³⁾에서는 “夫精明五色者 氣之華也 赤欲如白¹⁰⁴⁾ 裹朱 不欲如赭¹⁰⁵⁾ 白欲如鵝羽 不欲如鹽 靑欲如蒼壁之澤 不欲如藍 黃欲如羅裏雄黃 不欲如黃土 黑欲如重漆色 不欲如地蒼”이라고 하여 例를 들면 붉은 빛이 朱砂를 비단으로 쌓은 듯한 潤澤한 色이 나오면 火의 상태가 온전한 것이고, 붉은 흙과 같이 潤氣가 없으면 火의 상태, 또는 心臟의 상태가 良好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를 李¹⁰⁶⁾는 “五色之欲者 皆取其潤澤 五色之不欲者 皆惡其枯槁也”라고 표현하고 있다.

《素問·五藏生成篇》¹⁰⁷⁾에서는 五臟之氣의 生과 死를 論하였으니, 死에 대하여 “故色見靑如草茲者死 黃如枳實者死 黑如兇者死 赤如衄血者死 白如枯骨者死 此五色之見死也”라고 하였으며 生에 대하여 “靑如翠羽者生 赤如鷄冠者生 黃如蟹腹者生 白如豕膏者生 黑如烏羽者生 此五色之見生也”라고 하였다. 이에 對하여 高¹⁰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五臟之氣는 色으로 驗之하는데, 草茲는 死草之 色으로 靑에 白을 兼하였기 때문에 草茲와 같이 靑色을 보인자는 死하니 肝氣가 敗함시오. 枳實의 黃色은 靑을 兼하기 때문에 枳實과 같이 누른 사람은 死하니 脾氣가 敗한 것이다. 兇은 烟塵으로 黑色과 黃色이 兼하기 때문에 兇와 같이 검은색은 死하니 腎氣가 敗한 것이다. 衄血은 凝聚한 血로서 赤色에 黑色을 兼하기 때문에 衄血과 같이 붉은 者는 死하니 心氣가 敗한 것이다. 枯骨은 枯朽之骨로서 白色과 靑色을 兼하기 때문에 枯骨과

97) 汪宏：望診遵經，上海，五州出版社，1959，p. 8.
 98) 李正來：東洋醫藥原理，서울，第一文化社，1990，p. 89.
 99) 色至氣不至者死
 100) 氣至色不至者生
 101) 洪元植：精校黃帝內經靈樞，서울，東洋醫學研究院，1985，p. 228.
 102) 洪元植：精校黃帝內經素問，서울，東洋醫學研究院，1985，p. 39.

103) 洪元植：精校黃帝內經素問，東洋醫學研究院，1985，p. 57.
 104) 《脈經》，《千金方》 및 《聖惠方》에는 모두 “白”이 “帛”으로 되어있다. “帛”은 흰 비단을 뜻한다.
 105) 붉은 흙 자
 106) 李仲梓：前揭書 p. 26.
 107) 洪元植：精校黃帝內經素問，서울，東洋醫學研究院，1985，p. 39.
 108) 高士宗：黃帝內經直解，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1982，p. 89.

같이 하얀 것은 死하니 肺氣가 敗한 것이다. 이는 五色之見이 靑하여 死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여 死症의 色을 五行의 相克으로 理解하여 풀이하고 있다. 또, 生하는 色에 對해서는 五色의 正을 들어 설명하니 光潤華采한 까닭에 生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

또 <五藏生成篇>에서 “生於心 如以縞裏朱 生於肺 如以縞裏紅 生於肝 如以縞裏紺 生於脾 如以縞裏括婁實 生於腎 如以縞裏紫 此五藏所生之外榮也”라고 하여 精華가 안에 含蓄되어 있어서 内部의 光華가 外部로 潤澤하게 表現됨을 설명하고 있다¹⁰⁹⁾. 이러한 五色이 顔面에 나타나는 것을 根據로 五藏의 상황을 살필 수 있다.

(3) 面部의 色과 證狀

面部色診은 얼굴 각 부위의 色澤變化를 관찰함으로써 內在한 藏府의 生理, 病理的 變化를 알아내는 것이다. 面色은 藏府氣血의 外觀으로 이는 疾病變化의 反影이다. 正常人의 面色은 약간 黃色이면서 紅潤을 낀 듯하여 약간 광택이 있는 것으로 “常色”이라 부른다. 病이 있을 때 皮膚의 光澤에 變化가 생기는데 이를 “病色”이라 부른다.

<靈樞·五色篇>¹¹⁰⁾에 “黃帝曰, 靑黑爲痛, 黃赤爲熱, 白爲寒, 是謂五官.”이라고 한 것이 五色으로 證狀을 알아 볼 수 있는 最初의 문헌이 되며 <五色篇>에서 계속하여 “常候闕中 薄澤爲風 沖濁爲疝”라고 하여 色의 厚薄濃濁으로도 證狀을 표현하고 있다. 다시, “沈濁爲內, 浮澤爲外. 黃赤爲風, 靑黑爲痛, 白爲寒, 黃而膏潤爲膿, 赤甚者爲血痛, 甚爲癢, 寒甚爲皮不仁.”이라고 하여 이에 對하여 張¹¹¹⁾는 靑黑者는 風寒之色 故로 痛이 되며, 黃赤은 火之上色으로 熱이 되며, 白은 清肅之氣로 寒이 되니 이로써 外淫之病을 알 수 있다고 했으며, 風은 하늘의 陽邪이므로 黃赤으로도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다¹¹²⁾

이런 <內經>의 理論을 발전시켜서 현재의 韓

醫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白色은 虛, 寒證, 蟲症을 主한다. 面赤은 虛熱, 實熱, 血瘀를 主한다. 面靑은 寒, 痛, 瘀血, 驚風을 主한다. 面黃은 濕, 脾虛를 主한다. 面黑은 寒, 痛, 瘀血, 水飲, 腎虛를 主한다¹¹³⁾¹¹⁴⁾.

	靑	赤	黃	白	黑
五色篇앞	痛	熱	熱	寒	痛
五色篇뒤	痛	風	風	寒	痛
中醫診斷十四法	寒,痛,瘀血,驚風	虛熱,實熱,血瘀	濕,脾虛	虛,寒,蟲	寒,痛,瘀血,水飲,腎虛

<표-2> 五色에 나타난 證狀

① 靑色-主風 主痛 主驚風

靑色은 木에 屬하여 春을 主하고 그 氣는 風이 되어서 足厥陰肝經의 本色이 된다. 따라서 흔히 肝腸과 厥陰經脈의 症候를 主한다. 痛證은 대부분 靑色을 나타내는데 痛症의 原因은 氣道가 不通하여 氣血의 阻滯를 초래함이다, 肝經은 驚駭를 發하기 때문에 驚證 역시 靑色을 보인다. 靑하면서 黑하면 寒痛이며, 靑하면서 白하면 虛風이고, 靑而赤은 肝火가 되며 靑赤而晦는 鬱火가 된다. 面靑唇靑은 陰이 極한 것이요, 脾病에 靑色을 보이면 대부분 難治에 속한다¹¹⁵⁾.

② 赤色-主熱

赤色은 火에 屬하여 夏를 主하고 그 氣는 暑가 되어서 手少陰心經의 本色이 된다. 따라서 熱을 主한다. 赤이 微弱하면 대부분 虛熱이며 赤이 甚하면 대부분 實熱에 屬한다. 赤色은 火의 徵候이니 虛實에 주의하여야 한다. 虛證面赤은 흔히 久病에 發現하여 實證의 初期에 나오는 熱證과는 같지 않다. 久病虛人이 午後에 兩頰發赤하면 이는 肝腎陰火가 上炎한 所致이다. 肝病에 赤色이 보이면 難治이다¹¹⁶⁾.

109) 高士宗 : 前揭書 p. 90.

110)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26.

111) 馬元臺·張隱庵 : 前揭書(靈樞) p. 310.

112) 馬元臺·張隱庵 : 前揭書 p. 315.

113) 柔剛 : 前揭書 pp. 9~12.

114) 李鳳教 : 前揭書 pp. 47~48.

115) 馬建中 : 中醫診斷學, 臺北, 國立編譯館, 1987, p. 24.

116) 馬建中 : 中醫診斷學, 臺北, 國立編譯館, 1987, p.

③ 黃色-主濕

黃色은 土에 屬하여 長夏를 主하고 그 氣는 濕이 되어서 足太陰脾經의 本色이 된다. 따라서 濕을 主한다. 橋子와 같이 明亮한 黃色은 濕과 熱이 많은 것이요, 熏蒸한 연기와 같은 黃色은 濕多熱少이다. 黃하며 枯瘦한 것은 脾胃에 熱이 있는 것이요, 萎黃色은 脾胃氣虛이다. 黃而黯淡은 脾胃寒濕이고 黃而略帶棕色은 안에 蓄血이 있는 것이다. 淡黃에 紅點紅紋을 띠면 흔히 鼓脹에서 나타나는 데 이는 脾虛하며 肝血이 鬱滯된 것이다. 印堂, 鼻準 등에 黃色이 明潤한 것은 胃氣가 恢復되고 疾病이 退하는 것이다. 枯夭한 色은 胃氣가 衰한 것이니 難治病에 속한다¹¹⁷⁾.

④ 白色-主虛 主寒 主脫血 奪氣 脫津等

白色은 金에 屬하고 秋를 主하며 그 氣는 燥가 되어 手太陰肺經의 本色이 된다. 肺는 氣를 主하여 百脈을 朝하여 津液을 輸布하는 까닭에 白色은 氣血과 津의 病候를 主한다. 만약에 氣血이 充足하고 陰陽이 화하면 기색이 명윤하고 백색이 투명한 홍색을 엮고 있는 것 같아 《內經》¹¹⁸⁾에서는 “生於肺 如以縞裏紅”이라 하였다. 陰陽氣血이 不足하면 色淡白不紅하기 때문에 白色은 寒·脫血·奪氣·脫津을 主한다. 白而潤澤은 無病하니 肺胃之氣가 充旺한 證狀이다. 白而色淡은 肺胃虛寒이요. 印堂·準頭에 흰빛으로 明潤하면 善色이고 枯夭하면 惡色이다. 肝病에 白色이 보이면 대부분 難治이다¹¹⁹⁾.

⑤ 黑色-主寒 主痛, 主水

黑色은 水에 屬하며 冬을 主하고 그 氣는 寒이 되어 足少陰腎經의 本色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神藏과 足少陰經脈의 症候를 主한다. 水性은 寒하므로 寒이 多하면 血脈이 凝滯하여 不通하기 때문에 黑色은 寒과 痛을 主한다. 다만 黑而乾焦하면 熱性에 屬하므로 黑色에 역시 熱證도 있을 수 있다.

黑而肥澤은 無病에 屬하며 黑而瘦削은 陰火內傷이다. 黑而焦하며 齒槁한 것은 腎熱久蓄이다. 무릇 面上에 靑黑黯淡의 病色이 보이면 病의 新久를 가리지 말고 모두 陽氣不振에 屬한다. 일반적으로 黑色이 面에 出하면 陰盛陽虛가 되어 病은 반드시 嚴重하다. 만약 暗하되 빛이 있고 準頭, 年上, 壽上이 亮이 滋潤하면 生氣가 돌아오는 것이요, 만약 枯夭하면 돌연 死症이니 水來剋火의 逆證이다. 環口黧黑은 眞藏氣泛이 되니 腎絕證이다¹²⁰⁾.

이상에 서술한 것을 종합해 보면 面部의 色澤을 望診함에 根據하여 질병의 성질과 부위를 알 수 있다. 例컨데 面色에 은은한 黑色이 보이면 腎色이 外部에 보이는 것이고, 은은한 黃色이 보이면 脾色이 외부로 노출된 것이고, 靑色은 肝病을 主하고, 白色은 肺虛를, 赤色은 心火를 나타내는 것 등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과하는 부위의 望診이 한층 더 精確한 부위를 알 수 있는데 만약 頤에 黑色이 多하면 腎病이고, 靑靑하면 肝病이고, 頤부위가 赤하면 心病이고, 코가 黃色이면 脾病이고, 印堂이 眇白이면 肺病이다. 이런 이유로 色診은 疾病의 性質과 部位를 定하는데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 醫者는 面診圖에 根據하여 色澤變化를 잘 熟知하여 內藏病變을 確定지어야 한다¹²¹⁾.

(4) 察色으로 病의 進行狀態를 알 수 있다.

《靈樞·五色篇》¹²²⁾에는 疾病의 進行狀態를 察色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많이 言及되어 있으니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黃帝曰, 其色蠶以明, 沈夭者爲甚, 其色上行¹²³⁾者, 病益甚, 其色下行, 如雲徹散者, 病方已”라고 하여 病의 進退를 설명하였으며, 다시 “五色各有臟部, 有外部有內部也. 色從外部走內部者, 其病從外走內, 其色從內走外者, 其病從內走外. 病生於內者, 先治其陰, 後治其陽, 反者

120) 馬建中 : 中醫診斷學, 臺北, 國立編譯館, 1987, pp. 25~26.

121) 柔剛 : 前掲書 pp. 9~12.

122)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26.

123) 河北醫學院 : 靈樞經校釋(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91.

여기서 色이 上行 또는 뒤에 나오는 下行은 濁氣가 升 또는 漸退하는 것이다.

24.

117) 馬建中 : 中醫診斷學, 臺北, 國立編譯館, 1987, p. 25.

118) <五藏生成篇>

119) 馬建中 : 中醫診斷學, 臺北, 國立編譯館, 1987, p. 25.

益甚, 其病生於陽者, 先治其外, 後治其內, 反者益甚.”이라 하여 疾病의 表裏內外의 상태를 色으로 표현되며 이에 대한 治療도 역시 內에서 生한 病은 먼저 內를 다스리고 外에서 生한 病은 먼저 外를 다스린다. 따라서 “沈濁爲內, 浮澤爲外¹²⁴⁾”라고 하여 沈濁한 色을 內部의 色으로 보며 浮澤한 色을 外部의 色으로 보게 된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後代에 望色十要라고 하여 汪宏이 定理를 하였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望診遵經·相氣十法提綱》¹²⁵⁾에 “大凡望診 先分部位 後觀氣色 欲識五色之精微 當知十法之綱領”이라 하여 五色을 정밀히 살피기 위하여서는 十法의 綱領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그 十法은 浮·沈·清·濁·微·甚·散·搏·澤·疔이다.

① 浮沈

浮는 皮膚사이에 나타나는 色이요, 沈은 皮膚內에 숨어있는 色이다. 浮는 病이 表에 있는 것이고 沈은 病이 裏에 있는 것이다. 初浮하다 後沈한 것은 病이 表에서 裏로 가는 것이요, 初沈하다 後浮한 것은 病이 裏에서 表로 가는 것이다 이로써 浮沈으로 表裏를 구분할 수 있다¹²⁶⁾.

② 清濁

清者는 清明이니 그 色은 舒하고 濁者는 濁暗인 그 色이 慘하다. 清者는 病在陽이요, 濁者는 病在陰이다. 清에서 濁하게 된 것은 陽病이 陰으로 들어간 것이요, 濁에서 清하게 된 것은 陰病이 陽病으로 轉한 것이다. 이로써 清과 濁은 陰陽을 區分한다.

③ 微甚

色이 淺淡한 것을 微라하고 色이 深濃한 것을 甚이라 한다. 微者는 正氣虛하고 甚者는 邪氣實이다. 微에서 甚하게 되면 先虛而後에 實한 것이고 甚에서 微하게 되면 先實而後에 虛한 것이다. 이로써 微甚은 虛實을 구분하다.

④ 散搏

散은 疏離하니 그 色이 開하고 搏은 壅滯하니 그 色이 閉한다. 散者는 病이 近하여 장차 解할 것이요, 搏者는 病久하여 점점 聚한다. 先搏而後散者는 病이 비록 오래 되어도 장차 解할 것이요, 先散而後搏者는 病이 비록 가까워도 점점 聚하게 된다. 이로써 散搏은 久近을 구분한다.

⑤ 澤疔

氣色이 滋潤한 것을 澤이라 하고 氣色이 枯槁한 것을 疔라고 한다. 澤은 生을 主하고 疔는 死를 主한다. 疔에서 점점 澤한 자는 精神이 復盛한 것이요, 先澤이 점점 疔한 者는 血氣가 益衰한 것이다. 이로써 澤疔가 成敗를 區分함을 알 수 있다.

(5) 形氣色の 升降浮沈 表裏와 緩急

氣色이 裏에서 表로 떠오르면(浮) 病이 나오려는 것이며, 表에서 裏로 가라앉으면(沈) 病이 甚해지는 것이다. 얼굴의 외곽에서 중심인 코로 病色이 들어가면, 病이 깊어지는 것이며 코에서 외곽부위로 病色이 나오면 病에 차도가 있는 것이다.

熱府에 검은 색이 나타나거나, 寒府에 붉은 색이 나타나면 병이 위중하다.

燥渴하면서 火氣가 강렬하면 태과한 이마이다. 이마가 태과해도 潤氣가 있으면 태과한 것이 아니다. 관골이 과도하게 튀어나오면, 사회성이 발달하고 골이 튼튼하다. 단, 관골이 높이 솟아어도 코가 높으면 태과가 아니다. 관골의 太過정도는 귀와 코를 함께 본다.

2) 望神

望神은 氣色の 發顯으로 나타난 潤澤한 정도로써 神의 緩急有無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靈樞·天年編》¹²⁷⁾에 “何者爲神? 血氣已和 營衛已通 五臟已成 神氣舍心 魂魄華俱 乃成爲人”이라고 하니 이는 人間의 特徵的인 思惟意識活動으로 藏府氣血의 物質的인 基礎위에 發顯이 됨을 알 수 있다¹²⁸⁾.

神에는 두가지 意味가 있는데 廣義의 神은 人體의 生命活動을 總稱하는 것이고, 狹義의 神은 사

124)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27.

125) 汪宏 : 望診遵經, 上海, 五州出版社, 1959, p. 7.

126) 汪宏 : 前揭書 pp. 7~8.

127)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41.

128) 鄧鐵濤 : 中醫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26.

람의 思惟活動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望神은 患者의 意識狀態와 一般의인 狀態를 관찰하는 것이다¹²⁹⁾.

따라서 顏面望診에서의 望神은 얼굴을 통하여 神氣의 발현을 보는 것이다. 神은 생명활동의 총칭이며 《素問·移精變氣論》에 “得神者昌, 失神者亡”이라고¹³⁰⁾ 하였듯이 神의 有無가 生死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는 意識狀態, 言語呼吸, 形體動作, 反應能力 등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 中에서도 《素問·脈要精微論》의 “夫精明五色者氣之華也”를 李¹³¹⁾는 “精明見于目 五色顯于面 皆氣之華也”라고 하였듯이 神은 눈과 얼굴을 통하여 주로 드러나게 된다¹³²⁾. 《素問·六節臟象論》에서는 心은 生의 근본이며, 神이 머무르는 곳이다. 그 외부적인 표징은 面部로 발현되어진다¹³³⁾고 말하고 있다.

神은 色과 潤澤으로 발현되어진다. 그러므로 《醫門法律·望色論》에서 “色은 神이 발현된 것이다. 神이 왕성하면 色이 왕성하고, 神이 쇠하면 色이 쇠한다. 神이 隱藏되면 色도 숨게되고, 神이 드러나면 色도 드러난다”고¹³⁴⁾ 서술되어 있다. 또한 얼굴은 인체 가운데 情緒가 가장 잘 노출되는 부위이니 환자의 정서상태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3) 望形態

形態에 對하여 크게 靜的인 形과 動的인 態로 나뉘어 지는데 望形態는 患者의 體刑의 強弱 肥瘦等 形體의 表現을 觀察함으로써 內在한 病變을 診察하는 方法으로 일찍부터 《內經》中에는 望形態

에 관한 기록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素問·三部九候論》¹³⁵⁾의 “必先度其形之肥瘦 以調其氣之虛實”과 《素問·經脈別論》¹³⁶⁾의 “診病之道 觀人勇怯 骨肉皮膚 能知其情 以爲診法也”가 그것이다¹³⁷⁾. 그리고 望姿態는 患者形體의 動靜姿態와 異常動作을 觀察함으로써 內在한 病變을 熟知하는 方法이다¹³⁸⁾.

顏面에서의 望形은 얼굴의 형태학적 관찰을 통하여 內部 臟器의 狀況을 파악하는 것이다. 內部 臟器의 氣機의 狀況에 의하여 얼굴 각 部位의 形이 결정된다. 얼굴의 五官은 각 藏府의 精이 모여서 된 것이며 얼굴과 身形은 筋과 骨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¹³⁹⁾ 또한 12經脈과 365絡이 얼굴에 연결되어서 내부의 氣의 흐름을 외부의 形으로 발현시킨다. 예를 들면, 《顏面望診法》에서는 《靈樞·師傳篇》¹⁴⁰⁾의 “唇厚, 人中長, 以候小腸”을 引用하여 嘴唇의 두께와 人中의 길이로 小腸의 상태를 짐작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⁴¹⁾.

(1) 人體의 肥瘦에 관한 考察

《素問·三部九候論》¹⁴²⁾에 “必先度其形之肥瘦 以調其氣之虛實”이라고 하였듯이 望形의 內容 中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人體의 전체적인 肥瘦를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人體의 形態의인 表現을 관찰함으로써 그 사람의 內部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黃帝內經》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肥瘦의 구분과 그 특성, 肥瘦에 따라 毒에 견디는 정도, 肥瘦에 따른 鍼刺法 및 肥瘦와 氣血과의 관계 등을 살핍으로써 形體의 肥瘦의 측면이 어떠한 내부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 肥瘦의 구분과 특성

129) 李鳳教 : 漢方診斷學, 서울, 成輔社, 1992, p. 42.
 130)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46.
 <天年篇> “失神者 死, 得神者 生”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음.
 131)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41.
 132) 李仲梓 : 內經要要, 新文豐出版公司, p. 25.
 133) 李鳳教 : 前揭書 p. 43.
 134)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36.
 心者 生之本 神之處也. 其華在面
 135) 色者 神之旗也. 神旺則色旺 神衰則色衰 神藏則色藏 神露則色露

135) 洪元植 : 前揭書(素問) p. 81.
 136) 洪元植 : 前揭書(素問) p. 86.
 137) 李鳳教 : 前揭書 p. 51.
 138) 李鳳教 : 前揭書 p. 54.
 139) 《靈樞·邪氣臟腑病形論》“首面與身形也 屬骨連筋 同血于氣耳”
 140)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165.
 141) 李案雄 : 顏面望診法,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3, p.150.
 142) 洪元植 : 前揭書(素問) p. 81.

《靈樞·衛氣失常篇》¹⁴³⁾ “膈肉堅，皮滿者，肥(脂)¹⁴⁴⁾。膈肉不堅，皮緩者，膏。皮肉不相離者，肉”이라 하여 肥人을 脂，膏，肉人으로 區分하고 있는데 이 三者의 肥滿程度에는 區別이 있으니 ‘脂’人은 ‘肉堅’，‘皮滿’한 것으로 皮滿은 皮急肉多한 것이다. ‘膏’人者는 ‘肉不堅’，‘皮緩’으로 皮緩이라는 것은 皮가 肉보다 勝한 것이다. ‘肉人’의 ‘皮肉不相離’는 皮와 肉이 有餘도 不及도 없이 渾然一體된 것이다. 이를 보건대 ‘肉’은 堅勁하여 肌肉之肥에 該當하고 ‘膏’는 綿軟하여 脂肪之肥에 該當하고 ‘脂’는 皮急하여 肌肪間의 肥에 該當한다. 만약 肥胖으로 言及하면 膏人이 上이요, 肉人이 다음이요, 脂人이 그 다음이 된다¹⁴⁵⁾.

① 肥(脂)型

《靈樞·衛氣失常篇》¹⁴⁶⁾에 脂人에 對하여 “脂者，其肉堅，細理者熱，亂理者寒……脂者，其身收小……脂者，其血清，氣滑少，故不能大……脂人者，雖脂不能大者”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解釋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膈肉(肌肉이 돌기한 부분)이 堅實하고 皮膚가 充만하며, 肌肉이 단단하다. 肌肉의 紋理가 성근 자는 身寒하고, 肌肉의 紋理가 치밀한 자는 身熱하다. 衛氣가 미약하여 分肉이 充만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단단하고 작다. 血이 맑고¹⁴⁷⁾ 氣의 흐름이 매끄러우나 부족하므로 체형이 크지 않다. 따라서 脂人은 비록 脂는 많으나 體刑은 크지 않다¹⁴⁸⁾.

② 膏型

《靈樞·衛氣失常篇》¹⁴⁹⁾에 膏人에 對하여 “膏者，其肉淖而亂理者，身寒。細理者，身熱……膏者，

多氣而皮縱緩，故能縱腹垂腴¹⁵⁰⁾……膏者，多氣，多氣者，熱，熱者，耐寒……是故膏人縱腹垂腴”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解釋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膏人의 皮膚는 疏密強弱의 區分이 있는데 全般의 膈肉이 堅實하지 못하고 皮膚가 이완되어 있으며, 肌肉이 윤택하다. 肌肉의 紋理가 성근 자는 身寒하고, 肌肉의 紋理가 치밀한 자는 身熱하다. 陽氣가 많아 皮膚가 영성해서 腹部의 肌肉도 느슨하여 비게살이 아래로 처진다. 多氣한데 氣가 많으면 몸이 熱하고 추위를 잘 견딘다. 따라서 膏人은 腹部의 지방살이 아래로 처지는 것이다.

③ 肉型

《靈樞·衛氣失常篇》¹⁵¹⁾에 肉人에 對하여 “肉者身體容大……肉者，多血則充形，充形則平……肉人者，上下容大”라고 되어있으며 이를 解釋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皮膚와 肌肉이 단단하게 붙어 있으며, 肌肉이 不堅하고 융성하며 厚하다. 신체가 넓고 크다. 多血한데 血이 많으면 形體가 충실하고 충실하면 조화를 이룬다. 따라서 肉人은 上下가 容大하여 五體가 서로 均衡이 맞고 肥盛의 正格이 된다.

이로써 比較하면 膏人은 비록 富貴하고 단지 文事에 뛰어나나 體力이 薄弱하고 勇力이 뛰어나지 못하다. 肉人은 英武豪爽하여 勇力이 있으니 安樂하고 壽福한 경우이다¹⁵²⁾.

④ 衆人

《靈樞·衛氣失常篇》¹⁵³⁾에 衆人에 對하여 “此別於衆人者也。黃帝曰：衆人奈何。伯高曰：衆人皮肉脂膏，不能相加也，血與氣，不能相多，故其形不小不大，各自稱其身，命曰衆人”라고 하여 일반인은 皮膚, 肌肉, 脂, 膏에 치우침이 없고, 氣와 血에 편중됨이 없으므로 체형이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전신 의 皮, 肉, 筋, 骨이 저질로 균형을 이룬다.

이로써 살펴보면, 형체가 넓고 크며 肌肉이 단단하지 않고 융성한 사람은 肉型에 속하는데 이런 사람은 多血함을 알 수 있다. 肌肉이 堅實하지 않

143) 洪元植：前揭書(靈樞) p. 256.
 144) 洪元植：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36.
 甲乙經에 依據하여 脂라고 고쳐야 後文과 合한다.
 145) 陸錦川：前揭書 p. 79.
 146) 洪元植：前揭書(靈樞) p. 256.
 147) 榮精陰汁之不足 / 陸錦川：前揭書 p. 81.
 148) 《靈樞經校釋》에서는 體刑이 크지 않다고 解析하였으나 《中醫望診相法》에서는 ‘腹不能大’로 배가 크지 않다고 解析하고 있다.
 149) 洪元植：前揭書(靈樞) p. 256.

150) 유: 아래배 살찌다. 살찌다. 비육한 땅.
 151) 洪元植：前揭書(靈樞) p. 256.
 152) 陸錦川：前揭書 pp. 81-82.
 153) 洪元植：前揭書(靈樞) p. 256.

고 피부가 이완되어 있어 복부의 살이 처지는 상태의 사람은 膏型에 속하는데 이런 사람은 多氣함을 알 수 있다. 또한 體刑이 작으면서 단단하고 肌肉이 견실하고 피부가 충만한 사람은 脂(肥)型에 속하는데 이런 사람은 血이 많고 氣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의 形體를 살펴봄으로써 그 사람의 內部狀態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3) 肥瘦에 따른 毒(偏盛한 약물)에 견디는 정도

《內經》에는 肥瘦에 따라서 性味が 偏盛한 약물에 견디는 정도차가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肥人은 肌肉이 살이 찌서 血이 풍부하기 때문에 性味が 偏盛한 약물에 대해 잘 견딘다. 瘦人은 氣血이 不足하기 때문에 性味が 偏盛한 약물에 대해 잘 견디지 못한다.

(4) 肥瘦에 따른 鍼刺法

肥瘦의 여부에 따라 鍼刺의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肥人은 鍼刺할 때 가을과 겨울철의 鍼刺法을 기준으로 하는데, 秋에는 邪氣가 分肉에 있고 冬에는 邪氣가 筋骨에 있으므로, 分肉과 筋骨에 이르도록 深刺해야 한다.

瘦人은 봄과 여름철의 鍼刺法을 기준으로 하는데, 春에는 邪氣가 毛에 있고 夏에는 邪氣가 皮膚에 있으므로, 毛와 皮膚에 淺刺하여야 한다.

(5) 肥瘦와 氣血과의 관계

肥瘦와 氣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의 내용에서 언급되었지만 《靈樞·陰陽二十五人篇》과 《望診遵經》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靈樞·陰陽二十五人篇》¹⁵⁴⁾에서는 “其肥而澤者, 氣血有餘. 肥而不澤者, 氣有餘, 血不足. 瘦而無澤者, 氣血俱不足. 審察其形氣有餘不足而調之, 可以知逆順矣.”라고 하여 肥瘦의 여부와 潤澤의 여부가 血과 氣의 有餘不足의 상태를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다. 《望診遵經》¹⁵⁵⁾에서는 肥한 사람은 항상 多血少氣하다고 하였고, 瘦한 사람은 항상 多氣少血한다고 하였다. 또한 <陰陽二十五人篇> 經脈에 따

른 국소적인 肥瘦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예를 들면 “足少陽의 아래 부분에서는 血氣가 盛하면 外踝가 肥하고, 血多氣少하면 外踝의 피부가 堅厚하며, …… 血氣가 모두 少하면 外踝가 瘦하면서 肉이 없다¹⁵⁶⁾.” “足太陽의 위부분에서는 …… 血少氣多하면 面에 肉이 많고 …… 足太陽의 아래부분에서는 血氣가 盛하면 跟肉이 滿하고 踵이 堅하며, 氣少血多하면 瘦하며 跟이 窄하고, ……¹⁵⁷⁾” 등이다.

이렇게 形體의 肥瘦와 그 內部의 氣血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며 氣血의 변화가 形體에 드러나지만 반대로 形體를 보고 그 사람의 氣血의 多少역시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醫學入門》에서는 “肥白人 多濕痰 黑瘦人 多火熱¹⁵⁸⁾”, “肥白人 多濕痰 滯於上 火起於下 …… 黑人 多腎水虧少 相火上炎¹⁵⁹⁾” 등으로 肥白人은 氣虛多濕하고 黑瘦人은 血虛有火함을 說明하였고 《東醫寶鑑》에서도 丹溪의 義見을 빌어 “肥人氣虛生寒 寒生濕 濕生痰, 瘦人血虛生熱 熱生火 火生燥 故 肥人多寒濕 瘦人多熱燥也¹⁶⁰⁾”라고하여 實在臨床에서 지금도 많이 活用됨을 알 수 있다.

4) 體·形·氣·色·性에 따른 藏器의 차이

위에서 살펴본 것을 綜合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體가 크면 藏器가 크고, 體가 작으면 藏器도 작다. 이는 容積의 大小가 된다.

形의 肥瘦는 氣血의 多少를 알려준다. 肥는 血多氣少하고, 瘦는 氣多血少하다. 骨은 精의 집적체이니 骨은 淸해야 한다. 淸한 것은 강하게 보고 濁한 것은 약하게 본다. 骨淸하면 精多하며 氣가 강하다. 骨濁하면 精이 濁하고 氣가 弱하다.

色은 五行色の 造化를 보아야 하는데 계절과 相剋해서는 안된다. 곧 여름에 이마에 검은 색이 나타나면 안된다. 色澤은 潤澤이 있고 明潤해야 한다. 色澤이 明潤하지 않으면 커도 작게 보아야

154) 洪元植 : 前揭書(靈樞) p. 276.

157) 洪元植 : 前揭書(靈樞) p. 276.

158) 李梴 : 前揭書 p. 104.

159) 李梴 : 前揭書 p. 362.

160)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2, p. 341.

154) 洪元植 : 前揭書 p. 276.

155) 汪宏 : 望診遵經,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p. 114.

한다. 색이 明潤하면 작아도 크게 보아야 한다.

性情은 눈과 눈썹, 입꼬리의 상승과 하강하는 氣勢를 참고한다. 肉이 많아도 흘러내리면 없는 것만 못하고, 肉이 적어도 明潤하고 탄력이 있으면 많은 것과 같다.

望診에 있어서 體形氣色の 神氣色으로 大小를 달리 봐야 한다. 그러므로, 크다고 크게 보고 작다고 작게 보는 것이 아니니 엄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따라서, 顔面望診을 통하여 藏府氣血의 狀態를 診斷할 수 있고, 神氣와 情緒상태 또한 관찰할 수 있다. 이에 傷寒論序文에서 仲景先生은 明堂(코)·鬕(兩眉間)·庭(이마 부위)의 모두를 살피지 않으면 이른 바 엇보되 管(대롱)으로 함과 같다고 말하였다¹⁶¹⁾. 또한 춘추시대의 名醫扁鵲은 齊나라 桓公의 面相을 관찰함으로써 體表로부터 骨髓로 진행되는 病證의 深淺을 파악했다는 故事도 전해진다¹⁶²⁾. 이는 모두 顔面望診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4. 男左女右 男上女下의 男女차이

남자는 陽이며 여자는 陰이다. 좌와 上은 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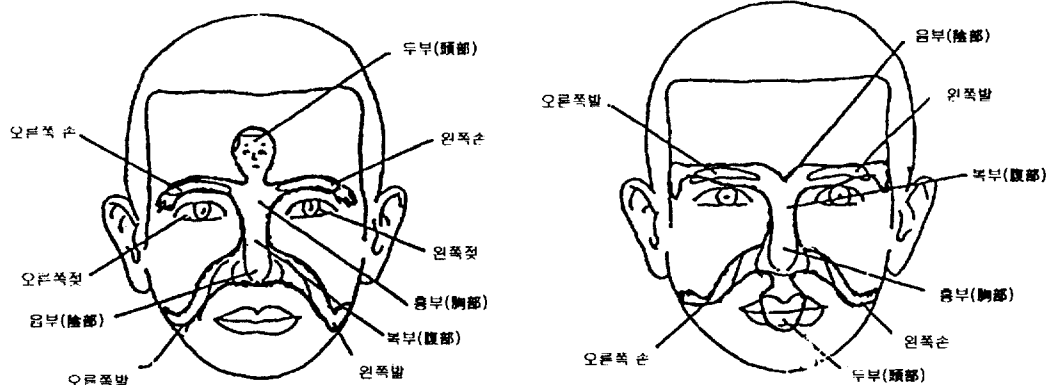
관계가 성립한다.

金¹⁶³⁾은 이에 對하여 “男은 向南하여 覆地하면 左가 東, 右가 西가 되고, 女는 向南하여 仰天하면 右가 東, 左가 西가 된다. 이것을 實證하려면 溺死體를 보면 男子는 伏浮하고 女는 仰浮한다. 南北은 男女 모두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12支의 配屬과 顔面에 대한 人體의 配屬에 男女의 차이가 있다. 남자는 시계방향으로, 여자는 반시계방향으로 12支를 配列한다. 顔面의 小人形相 配屬時 男子는 直立의 姿勢이나 女子는 倒立한 姿勢가 된다¹⁶⁴⁾.

張志聰은 “男子의 血氣는 左旋을 하고, 女子의 血氣는 右旋을 한다. 남자의 색이 오른쪽에 나타나면 左를 따라 흩어지니 順이 된다. 여자의 색이 왼쪽에 나타나면 오른쪽을 따라 흩어지니 順이 된다.”고 말한다.

人相學에서는 古來로 小人形相法이라는 方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얼굴 各部位에 몸을 압축시켜 適用함으로써 인상을 통하여 몸의 健康狀態를 알려는 의도이다¹⁶⁵⁾. 현대 中國에서 많이 쓰이는 人體全息圖의 顔面에 대한 全息圖라고 思料된다.



<그림 4> 小人圖

며, 右와 下는 陰이다. 이에 男左女右, 男上女下의

161) 張仲景 :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21.

162) 李鳳教 : 前掲書 p. 45.

163) 金哲眼 : 觀相寶鑑, 서울, 大造社

164) 金秉雲 : 觀相으로 보는 疾病에 관한 考察, 慶熙大 內科專攻 博士過程 中間發表, 1993, p. 15.

165) 金秉雲 : 前掲書 p. 15.

III. 結 論

諸文獻을 중심으로 顔面望診의 원리를 시간적, 공간적인 측면에서 연구, 조사한 結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顔面望診의 空間性은 上中下 三停으로 살피는 方法, 臟腑를 五官·方位·内外로 方法으로 알 수 있다.

(1) 五官은 五臟의 内部消息과 精氣神의 狀態를 가장 명확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疾病의 罹患 狀態를 나타낸다.

(2) 方位에 따른 顔面配屬을 통해서 熱證과 疾病이 未發하거나 發病直前의 狀態를 診察할 수 있다.

(3) 内外에 따른 顔面配屬은 顔面을 鼻를 중심으로 圓을 그려서 五臟을 넣고 그 바깥쪽에 六腑를 배속하는 法으로 이 法을 통해서 具體的인 個個의 疾患, 慢性病, 體質的인 素因 등의 狀態를 診察할 수 있다.

2. 顔面望診의 時間性은 初中末로 살피는 方法, 四時에 따른 寒熱燥濕의 變化를 살피는 方法, 十二月에 따른 變化 및 流年에 따른 觀察을 통해 알 수 있다.

(1) 인체는 기후와 계절에 따라서 氣機의 升降浮沈과 色澤이 변화하니, 運氣를 바탕으로 望診을 행해야 한다.

(2) 春夏秋冬의 變化에 따라 方位와 五官 등을 살펴보고, 流年是 大運과 小運을 같이 보며, 運命의 強弱을 결정하는 部位도 같이 보아야 한다.

(3) 顔面望診時에는 반드시 時間的인 要素와 空間的인 要素를 같이 참조하여야 한다. 즉 時間도 四季, 月別, 나이를 같이 보아야 하고, 空間도 五官, 内外, 方位를 같이 보아야 한다.

3. 顔面望診의 時間과 空間의 交叉地點에서 파악할 수 있는 매개체는 形과 氣色이며, 이러한 氣色에 의하여 發顯되는 것이 神이다.

(1) 五色으로 臟腑의 狀態, 表現證狀 및 病의 進行狀態 등을 살필 수 있으니 氣色の 升降浮沈과

表裏 緩急으로 人體의 生理病理機轉을 판단할 수 있다.

(2) 體·形·氣·色·性에 따라서 臟器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또한 形의 肥瘦로 氣血의 多少를 알 수 있다.

4. 男子는 陽, 女子는 陰으로 男左女右, 男上女下가 되며, 男子는 12支 配屬이 시계방향이며, 여자는 반시계방향이 된다.

이상과 같이 顔面望診에 대하여 黃帝內經을 비롯한 諸醫書를 통하여 時·空間으로 살펴본 결과, 顔面望診은 現在, 過去, 未來를 추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함유된 원리인 三三變의 원리, 六六之節의 원리에 의해서 관찰해야 한다.

아울러 五官 및 기타 顔面部位를 통한 五臟六腑의 診斷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통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1.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2.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3. 剛柔 : 中醫診斷十四法, 北京, 金盾出版社, 1994.
4. 河北醫學院 :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5. 陸錦川 : 中醫望診相法,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6. 李案雄 : 顔面望診法, 서울, 정담, 1992.
7. 汪宏 : 望診遵經, 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56.
8. 李正來 : 東洋醫藥原理, 서울, 은누리출판사, 1988.
9. 李鳳教 : 韓方診斷學, 서울, 成輔社, 1986.
10. 宋点植 : 醫學輯要, 서울, 효림, 1991.
11. 馬元臺·張隱庵合註 : 黃帝內經素問靈樞, 대북, 臺聯國風出版社, 1985.
12. 程士德 : 素問注釋匯粹, 북경, 인민위생출판

사, 1982.

13.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1.
14. 卍誠佑譯 : 完譯 麻衣相法, 서울, 明文堂, 1994.
15. 楠虛谷 : 靈素節注類編(醫門棒喝三集), 浙江省,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16. 金哲眼 : 觀相寶鑑, 서울, 大造社.
17. 崔英純 : 實際人相學, 서울, 東洋書籍, 1981.
18. 張介賓 :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19. 陳修園 : 陳修園醫書五十種,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8.
20. 吳謙 : 醫宗金鑑 四診心法, 臺南, 世一書局, 1985.
21. 李仲梓 : 內經知要,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22. 李挺 :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9
23. 徐學山 : 醫學門徑,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7.
24. 金東佑 : 觀相으로 보는 疾病에 관한 考察. 慶熙大 韓醫科大學 內科專攻 博士課程 第5期 中間發表, 1993.
25. 金定濟·洪元植 : 韓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1982.
26. 李相股 :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1994.